

지상 법석

불효자 없어야 사회 건강"

럽습니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어찌 한 번 주물러 드리고, 죽 한 그릇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할 따름입니다. 효도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부모은중경)도 안 읽어보았느냐고 자식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자성불과 약속 하자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변명하길 효도를 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은 맞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효도는 서로 맞아야 하는 데 맞출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한갓 변명해 불과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부처님 말씀에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게겐 조카나 그릇도 맞추다 보면 꼭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맞추려 하지 않고, 조금 깨어진 그릇이라 해서 집어 던져버리면 산산조각이 나서 영영이 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니다. 참선을 통해 화두를 깨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묵히 앉아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믿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이 모두 마음 탓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질을 바꾸고 마음을 고치며 입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위대한 발심(發心)이 필요합니다. 시시 때때로 참선을 통해 발심의 불꽃이 스러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잘 써서 효도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젊은이나 어린이 혹은 잔혹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행복의 꽃이 피고, 행복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되도록 서로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오는 것입니다.

골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 공양한다 할지라도, 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한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더럽고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닦아 주며, 금이야 옥이야 길러주신 그 사랑스런 은혜의 만분의 일도 보답할 수 없느니라. — 나무미타불 —

만일 어떤 사람이 흉년에 부모가 굶고 있어 게실 적에 피를 뽑아 국을 끓이고, 뼈를 갈아 죽을 쑤며, 살을 베어 불고기를 만들어 10년 내지 20년을 한

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세번에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키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진지리 마흔자리 갈아 누이시고,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회생을 감수하셨습니까.

혹여 여러번 중에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심해서 알아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덕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이 세상 죄악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키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진지리 마흔자리 갈아 누이시고,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회생을 감수하셨습니까.

혹여 여러번 중에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심해서 알아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덕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이 세상 죄악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키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진지리 마흔자리 갈아 누이시고,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회생을 감수하셨습니까.

혹여 여러번 중에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심해서 알아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덕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이 세상 죄악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키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결같은 마음으로 봉양한다 할지라도 부모님 은혜에 만분의 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릴 기르실 적에 사경을 헤메는 자식을 살리고자 수 많은 날을 뜬눈으로 지새웠으며, 더위와 추위도 있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진지리 마흔자리 갈아 누이시고, 자식을 위해 먹을 것 안먹고 입을 것 안입고 회생을 감수하셨습니까.

혹여 여러번 중에 나는 부모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심해서 알아 할 것입니다. 이 세상 공덕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고, 이 세상 죄악 중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 보다 큰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시간의 허구성

김성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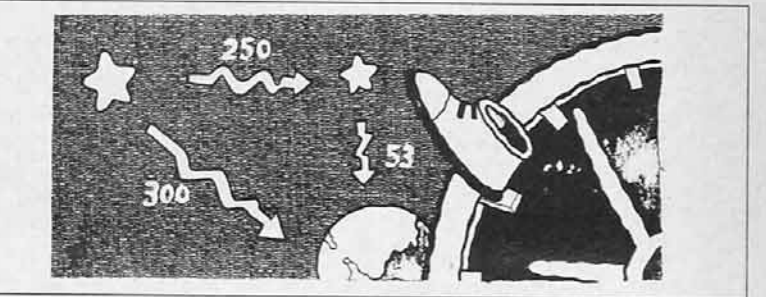
제논의 파라독스에는 아킬레스가 아무리 빨리 달라도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게 되어 있다.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100m 앞서 달린다면 아무리 잘 달리는 아킬레스라도 느린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아킬레스가 100m 달려서 거북이는 10m 앞서 있고, 또 아킬레스가 10m 따라오면 거북이는 1m 앞서 있고 이 일을 되풀이할 경우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역설이다. 이것은 시간이라는 친구를 멀리 떠나보내고 공간이라는 친구만 오랫동안 사귀어 온 허상의 산물이다. 이제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혹사 뉴욕에 친구가 있어 전화를 건다면 "여보세요"하는 동시에 서울에 있는 상대편에서 "여보세요"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만약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알파센타우리에 우주여행을 갔다고 하자, 그 곳에 도착하여 지구에 있는 친구에게 전

바란에서의 현재가 베델루스에서는 과거가 되고, 지구에서 바라보면 미래가 되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전, 후 동시성의 개념도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결국 시간이라는 것도 공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것이다.

불교에도 시간의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이 있다.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중국 불교는 교리중심적인 형식주의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모든 형식을 타파하고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선을 가르쳤다. 이때 많은 스님들이 임금에게 "달마대사는 의도오니 죽여버리십시오"라는 상소를 몇 번이나 올려서 결국 사약을 내리게 하였다. 사약을 마시면서 "아아, 동토도 인연이 다 되었구나. 내가 죽거든 화장하지 말고 응이산에나 묻어주세요." 하면서 유언하였다. 임금은 달마대사에게 사약을 내린 것을 크게 후회하면서 자신이 신이려고 만들어 놓은 새신을 달마대사에게 신겨 유언대로 묻어

존재 실상 바로 알면 3세도 오늘과 같아 역대선사들 시공 초월 자유로운 삶 보여



화를 걸어 "여보세요, 나 누군데, 여기 알파센타우리아"하고 말한다면 그 음성이 지구에 있는 친구가 듣기까지는 4년이 걸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극성은 그 곳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약 1,000년이 걸린다. 1초에 3십만km로 달리는 빛이 1,000년 동안 달려서(1000광년) 도착한 곳에 북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과 같이 지구와 오리온좌의 베델루스, 황소좌의 알데바란을 한번 살펴보자. 베델루스와 알데바란은 지구에서 300광년, 53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알데바란은 베델루스에서 약 2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그런데 서기 2000년 3월 17일 밤에 베델루스의 폭발에 의해 오리온 별자리가 파열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날짜와 여기에 나오는 다른 날짜는 모두 지구에서의 일의 진행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붙인다면 베델루스는 3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므로 지구에 있는 우리들은 그 별이 파열하는 날에는 보지 못하고 별이 파열할 때 생기는 광파가 지구에 이르기까지는 300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는 것은 2300년 3월 17일 밤의 일이며, 한편 알데바란에 있는 사람은 2250년 3월 17일 밤에 폭발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폭발사건은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각각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황소좌 알데

바란에 매장하였다. 3년이 지나 위왕의 사신 송운이 인도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파미르고 원에 있는 총령 고개에서 달마대사를 만났다. 반가워 인사를 드렸더니 달마대사께서 "동토는 인연이 다 하여 천축으로 가는 길이었"하면서 신발 한켠을 송운에게 주면서 "이 신을 임금에게 드리고서 바빠서 인사도 못 여쭙고 떠났다고 전해주세요." 하였다. 송운이 위나라로 돌아와 임금에게 말씀드렸더니 달마대사가 돌아가신지 3년이 되었다 한다. 신하들을 시켜 응이산의 무덤을 파 보았더니 관 속에는 신 한켠만 들어 있었다. 시간의 전후가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외에도 나고 죽음을 뜻대로한 신라시대의 해공스님 등 많은 스님들의 영적인 행위들이 있다.

불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은 공간적으로 물체의 앞 뒤가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생명이 있어서 시간적인 전후의 개념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철저히 믿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주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상대적인 개념이듯이 불교에서도 철저히 상대적인 인식에 불과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려면 어떤 어느 쪽에서 바라보더라도 같은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최선 다했다 생각해도 부모사랑만 못해 원망·미움 내뿜...전생에 잘못 닦은 업보

맞추려 애쓰고, 이해하고 칭찬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이란 것이 눈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자성불과 약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의 흉을 보는 것, 짜증 내는 것을 뿌리 뽑겠습니다.' 그것만 뿌리 뽑아버리면 누이 좋고 매부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한다면 미움을 받는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도 나쁜 겁니다. 가능하면 칭찬하고 자애심을 지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선을 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

한 심보를 지닌 사부모나 자식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 없이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전생에 잘못 닦은 자신의 업보로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마음 자세입니다. 불교는 상대를 원망하기 보다는 모든 허물이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모두가 내 탓이라는 말이지요. 이와같은 마음을 부모나 자식들이 지니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 화목한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불효자가 없는 사회는 건강하고, 활기넘치며, 인간미가 넘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자식은 부모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는 (부모은중경)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점입니다. 요즘 자기의 부모

려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을 한탄 하기에 앞서 사비의 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 살갑게 봅시다. 모두가 무상한 삶의 한계를 느끼지 못한 탓이라 보지요.

효도의 세가지 방법

세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오른쪽 어깨에 어머니를 모시고 세계 방방곳곳을 관광시키드려 발바닥이 닳아서 피가 나고, 살이 닳아서 뼈가 드러나며, 뼈가 드러나서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 일정	요금	출발일			
				12월	05.1	2월	3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78만원	12월 23일	출발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12월 23일	출발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گیر-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립루)-라나우-델리-방콕	200만원 (155만)	95년 2월 16일	3월 7일		
INA-04	인도 16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گیر-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30만원 (200만)	95년 2월 10일	3월 3일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گیر-나란다-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라나우-아그라-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파드-봄베이-방콕	260만원 (220만)	95년 2월 7일	2월 28일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گیر-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어-아그라-델리-보팔-산치-잘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파드-봄베이-쿨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칸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320만원 (270만)	95년 2월 5일	2월 19일	3월 5일	

INDIA 인도관광성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 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출발예정일

인도 (10박 11일)	12월 23일 (인도 4대성지)	178만원
일본 (4박 5일)	12월 24일 (오사카·나라·교토)	115만원
홍콩·스리랑카 (10박 11일)	1월 10일 (홍콩·쿨롬보·칸디·볼루사)	145만원
대만 (4박 5일)	1월 22일 (불광사·일월담·타이페이)	55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46-19 원당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 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 일정	요금	94.12	95.1	2월	3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푸가-방콕-아유타야(파타야)	129만원	2월 16일	10월 21일	10월 22일	11월 22일
SMR-02	일본 5일	오사카-나라-교토	95만원	23일	18일	17일	20일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토-오사카	135만원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궁-불광사-아유	55만원	16일	14일	12일	5일
SMR-05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만원				
SMR-06	동남아 4개국 9일	홍콩-(칸타오)-푸켓-방콕-싱가폴-조호바루	115만원	18일	21일	17일	10일
SMR-07	동남아 4개국 17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들-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만원			14일	28일 14일
SMR-08	(9박 10일) 홍콩 스리랑카	홍콩-쿨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칸디-누와라렐리아(볼루산)	145만원			10일	5일 17일
SMR-09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쿨롬보-아루라다푸라-하바라나-칸디	108만원			22일	15일 24일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